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은모(成垠模)**
최창욱(崔昌旭)***
김혜경(金慧敬)****
오석영(吳昔泳)*****
진성희(陳成姬)*****

논문 요약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청소년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청소년이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의 선행문헌 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구성체제의 기본안을 바탕으로 청소년 분야(학계, 현장, 정책분야)에서 10년 이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 전문가 28명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개념의 타당성과 구성체제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그리고 사회참여 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과 같이 5개의 청소년 역량군과 16개의 하위역량이 도출되었다. 또한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이 중요하였고, 중기 청소년 시기에는 생애학습역량, 대인관계역량, 진로개발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기 청소년 시기에는 사회참여역량, 진로개발역량, 생활관리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 역량의 개념적 정의와 구성체제를 기반으로 기존 청소년 역량과의 차별성을 논의하였고,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의 활용에 대한 추후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역량, 생애학습, 생활관리, 진로개발, 대인관계, 사회참여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인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 제1저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교신저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대학교육혁신원 조교수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조교수

***** 인하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조교수

I. 서론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청소년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시행되면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나 암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지식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환경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OECD, 2005)를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UNESCO는 2015년부터 Learning Matrix 프로젝트(UNESCO, 2013)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이나 자격체계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년 동안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생애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진단할 수 있는 지표 및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7년부터 교육과정과 관련된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3년부터 학생역량지수와 인성역량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소년 역량 연구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수준을 OECD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 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을 다루었다는데 제한점이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대적 특성과 앞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하여야 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관점에서의 특성이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 청소년 역량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제지수의 수준만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라 하기에는 대표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이루어져 온 청소년 역량 연구는 그 관점이 학교 교육과정 및 제도 개선이라는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들의 청소년 역량에 대한 관점은 평생학습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 역량의 관점과 직업기초능력으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두 관점 모두 학교교육을 통해 획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기에 청소년의 생활전반에 걸친 역량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기현 외, 2008; 소경희, 2007).

그렇다면, 현재 사회의 적응과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중·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고등학생만이 청소년 역량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전체적인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량을 개발시켜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을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단계로 본다면, 청소년 역량의 개발은 청소년의 내면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적 범위도 가정과 학교가 아닌 전 생활영역까지 확대해서 청소년 역량을 강화 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청소년 역량이 개인 연구자 수준에서의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 혹은 사회적 수준과 같이 거시적 관점에서 도출되고 합의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통해 청소년 역량 정책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보다 다양하게 강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의 적응과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개념과 이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를 국가 혹은 사회적 수준의 거시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인으로써 성장하는데 요구되는 역량과 청소년 시기의 전 생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역량지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역량지수는 현재 청소년의 역량수준을 측정·진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써 성장하는데 충분한 법적·정책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기반으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역량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셋째,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는 타당한가?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하여 이에 기반이 되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 역량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한 선행문헌을 분석하였고, 국가 혹은 사회적 수준과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 및 구성체제를 제시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요소와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청소년 역량의 개념 및 특징

역량(competency)은 본래 직업 교육 또는 기업 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직무 기술, 지식 뿐 아니라 개인적 자질, 태도 등으로 이해되며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McClelland, 1993; Spencer & Spencer, 1993)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역량의 개념은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 관점의 청소년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정의로 연구되고 있다. 청소년 개발 관점의 청소년 정책은 문제 중심의 특정 청소년 집단에 대한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예방적 차원의 소극적 정책을 뛰어 넘어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인간 개발적 관점 정책과 맞물려 발전하였다(천정웅, 2009). 따라서 청소년은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자산으로서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개발 가능한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되므로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에 발달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술, 자아개념, 동기, 내면적 특질을 청소년의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역량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면, 김기현 외(2008)는 청소년기의 핵심 역량을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으로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핵심역량으로 DeSeCo의 영역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적 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종합적 사고력을 포함하여 총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윤명희, 김진화(2008)는 청소년의 역량을 생활역량으로 보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 간에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청소년 생활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자기성장, 자기조절, 공동체, 상황대처, 문제해결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고 총 22개의 생활기술로 구성되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생활 역량의 개념은 역량기반 학교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청소년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역량을 측정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여(윤명희, 장아름, 2008), 이들을 위한 잠재성을 개발을 위한 역량의 활용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청소년 역량을 시민역량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김영인(2010)은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대해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갖춰야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습득하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규범을 지키는 실질적인 참여능력'이라고 하였다. 청소년 시민역량의 하위요소로 지식, 기능, 가치·태도, 참여·행동 등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고 현재의 사회, 즉 민주사회, 정보사회, 다문화 사회 등에서 시민역량의 하위요소들은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고 병렬적으로 발달해야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역량을 진로개발역량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졌는데, 류재윤과 이유경(2012)은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은 '단순한 진로지식의 습득정도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역량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의 기본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역량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 역량은 특정 청소년 시기에 요구되는 역량보다는 아동과 성인으로 이해하는 전체적인 발달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포함하여야 하고, 둘째, 청소년 역량은 개인의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은 청소년의 현재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2. 국내외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

국내외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 선행분석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혹은 사회적 수준과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역량지수 개념화하고 구성체제를 제시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에 대한 국내 사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생역량, 교육부의 인성역량의 구성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외 사례로는 OECD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 미국의 EFF(Equipped For the Future) 프로젝트, 그리고 뉴질랜드의 핵심역량 구성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기헌과 동료들(2100)은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지수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역량은 현재까지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된 핵심역량 개념 중의 하나인 OECD의 DeSeCo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접근하였다.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지수는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지적도구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역량이외에 사고력을 추가하여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하위 영역 및 하위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구성체제(김기헌 외, 2010)

지표	하위 영역
지적도구활용 영역	언어, 상징 문자
	지식, 정보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자율적 행동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인지적 차원)
	비판적 사고성향 (정의적 차원)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창환(2013)이 개발한 학생역량은 학생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의미하며, 배우는 존재로서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현재 사회와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교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의미하며, '학교'라는 영역에서 국가 책무로서 집중 육성해야 하는 역량이다. 학생역량지수는 이는 신체역량, 정신역량, 지적역량, 진로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역량 등의 6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생역량지수 구성체제(김창환, 2013)

지수	하위영역
신체역량	체력
	체격
	영양
정신역량	정신건강역량
	자율역량
	긍정적 자아역량
지적역량	창조적 역량
	정보역량
	학습역량
진로역량	자기이해역량
	진로탐색역량
	진로준비행동역량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역량
	협동력
	갈등해결역량
시민역량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 역량
	사회참여역량
	규칙준수역량

교육부(2013)는 ‘2012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방안 연구’에 근거하여 인성역량지수 구성체제를 개발하였다. 인성은 ‘우리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면모, 성질, 자질, 품성’이라는 의미가 인성의 개념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강선보 외, 2008). 인성역량을 도덕성, 사회성, 감성(정서성)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도덕성은 정직, 책임, 윤리가 포함되었고, 사회성은 배려(봉사), 공감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성(정서성)은 긍정적 자기이해와 자기조절로 구성되었다.

<표 3> 교육부의 인성역량지수 구성체제(교육부, 2013)

지수	하위구성요인
도덕성	정직/정의
	책임
	윤리(어른공경)
사회성	배려(봉사)
	공감
감성(정서성)	긍정적 자기이해
	자기조절

다음으로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OECD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새로운 능력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성공적인 개인의 삶과 국가발전에 필요한 능력들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OECD는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로써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Ananiadou & Claro, 2009). OECD의 핵심역량은 지적도구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역량 영역에 각 3가지의 하위역량을 구성하여 총 9가지 생애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Rychen & Salganik, 2003). OECD에서 합의한 핵심역량의 개념 및 요소들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 수준의 능력지표를 개발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표 4> OECD DeSeCo 핵심역량지수 구성체제

지수	하위구성요인
지적도구 활용	언어, 상징, 텍스트 사용 능력
	지식과 정보 사용 능력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지수	하위구성요인
사회적 상호작용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협동능력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자율적 행동	넓은 시각에서 행동하는 능력
	인생의 계획과 개인과제 실행능력
	자신의 권리, 관심, 한계, 욕구 옹호 및 주장능력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93년 미국 NIFL(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과 NEGP(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간의 공동연구로 수행된 EFF(Equipped for the Future) 프로젝트는 가족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 직장에서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한 생애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Merrifield, 2000). EFF 프로젝트에서는 가족, 시민,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13가지의 공통 활동(common activities)과 16가지의 일반기술(general skills)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생활전반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생애핵심역량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4> 미국 EFU 핵심역량지수 구성체제

지수	하위영역
의사소통기술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관찰
의사결정기술	수리력
	문제해결력
	계획
대인관계기술	협력
	지지와 영향
	갈등해결과 협상
평생학습기술	학습책임감
	반영과 평가
	조사를 통한 학습
	정보 및 의사소통기술의 사용

뉴질랜드는 기존의 공교육체계를 핵심역량 기반 교육프레임으로 개혁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뉴질랜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5가지핵심역량은 사고력, 언어·기호·문자 활용

역량, 자기관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참여와 기여 역량이며, 각 역량은 서로 분리되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으며 하나의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공교육의 목표를 5개 핵심역량 육성으로 설정하였고, 유아교육-초·중등교육-고등교육을 통해 연계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연결소통에 능한 사람, 활발히 참여하는 시민, 그리고 평생학습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그림 1] 뉴질랜드 공교육 목표(5가지 핵심역량)(Ministry of Education, 2007)

3.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 개발의 시사점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역량지수 구성체제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기본관점과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에 포함될 수 있는 역량요인들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사회의 적응과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을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역량지수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관점이 명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선행문헌 분석과 연구진에 의해 도출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과 구성체제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기본방향과 관점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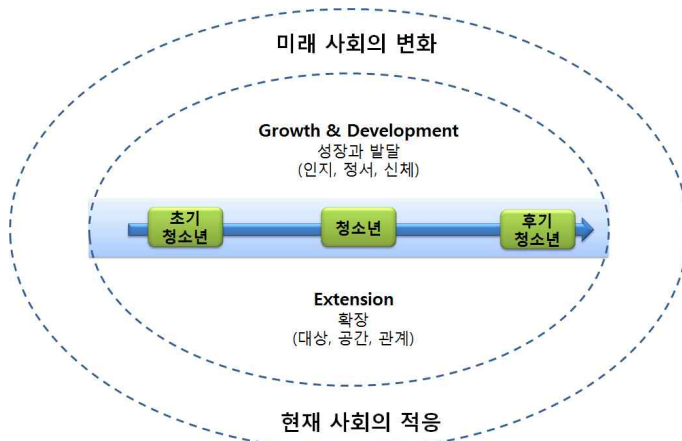
첫째, 청소년의 역량지수는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적 특성(Intrapersonal competency)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이는 청소년이 특정 시기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성인이 되어가는 전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아동과 성인의 두 영역이 교차되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역량 또한 성장 및 발달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별로 핵심적으로 신장시켜야 할 역량의 요소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를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개인과 가정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기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학교(또래, 교사)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게 되고, 후기 청소년 시기에는 조직, 사회, 국가, 세계수준으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 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지수가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아동시기에서 부터 성인으로 이행하는 전체적인 발달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즉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필요한 역량을 포함시켜야 한다. 청소년의 역량은 현재의 발달시기에 요구되는 역량과 미래사회와 성인기에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청소년이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 적응하여 성인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예측하여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청소년 역량의 개념을 제시하면, 청소년 역량이란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 개발을 위한 기본관점에 대한 개념모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기본관점

이와 같은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의 기본관점과 역량지수 구성체제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 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역량에는 현재시점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생애(lifelong)’의 개념을 포함시켜 평생학습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개인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의 신체, 정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자신의 미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이 속한 집단에서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집단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관계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선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에 의거하여 ‘지속학습역량(3)’, ‘자기관리역량(5)’, ‘자기개발역량(3)’, ‘대인관계역량(3)’, 그리고 ‘시민참여역량(3)’ 등 총 5개의 역량군과 17개 하위역량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틀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선행문헌 분석으로 도출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요소와 개념적 정의

역량군 및 개념	하위역량 및 개념
<p>지속학습역량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력 시스템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비판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지적도구활용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학습민첩성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p>자기관리역량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및 신체관리 자신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 목표 및 과제관리 구체적인 목표 또는 과제를 설정,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상황대처 및 관리 개인 또는 사회적 문제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경제관리 올바른 경제습관을 형성하여 합리적 소비를 하는 능력 • 정서조절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능력

역량군 및 개념	하위역량 및 개념
<p>자기개발역량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설계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 여가활용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 개척정신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
<p>대인관계역량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집단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사회적 관계기술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형성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 리더십 집단의 작업 전반을 파악하고 팀원들의 참여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효율적으로 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하여 추진하는 역량 • 협동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p>시민참여역량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시민성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초가 되는 민주적 가치, 신념을 갖추기 위한 역량 • 공동체 참여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민주적 원리를 존중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갖춰야 할 역량 • 세계 시민성 인류 번영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협력하고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

III. 연구 방법

1.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현재 사회의 적응과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선행문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청소년 역량을 개념화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전문가 패널 역량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였다. 전문가 패널 중심의 역량모델링은 현재 정의되어 있지만 미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량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패널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역량을 정교화하여 개발하는 모델링 기법이다(오현석, 성은모, 2013; Spencer & Spencer,

1993). 역량 모델링을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 우수한 수행을 하는 개인의 내적·외적 특성이 관찰 가능하여야 하는데, 청소년 역량의 경우 우수한 청소년의 관찰 가능한 특성을 개념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관련 선행문헌 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기본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패널로 구성하여 이들의 합의 또는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역량지수의 구성체제에 대하여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정교화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28명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다.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패널 구성을 위해 청소년 정책 도출과 관련되어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및 현장의 실무인사로 구성하였다.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 전문직에 10년 이상 연구와 현장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학계 전문가로는 대학교에 청소년 관련 학과 소속 교수 11명과 청소년 역량연구를 수행하였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6명으로 구성하였고, 청소년 분야 현장 전문가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수련시설 및 문화센터 관장 등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정책관련 공무원으로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역량 관련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명 등 총 2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연구절차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청소년 역량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역량을 개념화하고 청소년 역량의 개념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이론적 틀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청소년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명,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수정·보완된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28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3차에 걸쳐 전문가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선행문헌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과 구성체제에 대한 타당성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하여 판정하게 하였으며, 해당 지수의 개념과 구성체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하게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과 구성체제에 대하여 1차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타당성 검증과 의견수렴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결과와 타당도 값이 역량군 평균이 4.65(표준편차=0.61), 하위역량 평균이 4.59(표준편차=0.61)로 나타나 역량지수의 개념과 구성체제에 대

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타당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3차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이 특정 청소년 시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및 발달적 특성과 현재와 성인기 시기의 특성을 아우르기 위한 관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도출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에 있어 청소년 역량지수 간 가중치와 청소년 시기(초기-중기-후기)별 가중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에 걸친 전문가 패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과 구성체제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선행문헌 분석과 전문가 패널 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 및 구성체제를 개발하였다. 선행문헌분석을 통해 5명의 연구진이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과 구성체제에 대한 기본방향과 개념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테마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테마분석이란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테마(theme)나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테마들을 도출하여 이들을 몇 가지 차원으로 묶어 분류하는 방법이다(성은모, 오현석, 김윤영, 2013; Boyatzis, 1998). 테마분석을 통해 청소년 역량 개념이 도출되고,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 개발을 위한 5가지 역량군과 17개의 하위역량이 앞서 제시한 <표 5>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과 구성체제(5개 역량군, 17개의 하위역량)에 대한 전문가 패널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역량을 모형화 하였다. 전문가 패널 조사는 4주에 걸쳐 3차의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전문가 패널 설문조사에 있어 평균에 대한 척도는 리커르트 5점 척도로 타당성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개방형으로 해당 역량군과 하위역량의 개념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패널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도가 현저하게 낮거나 평균의 차이가 많이 나는 역량에 대해 제거하거나 해당 개념이나 역량지수 구성체제를 수정·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패널 조사 자료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 역량의 개념 및 역량지수 구성체제에 대하여 연구진 5인이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5가지 역량군과 16개의 하위역량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의 구성체제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의 구성체제는 국내외 청소년 역량체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지속학습역량, 자기관리역량, 자기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시민참여역량 등 5개 역량군을 도출하였다. 5개의 청소년 역량군의 구성체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총 2차에 걸쳐 전문가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다. 1, 2차 결과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의 개념과 구성체제의 타당성에 대한 1차, 2차 조사 결과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의 개념 수정	역량군의 타당성			
	1차		2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30	0.95	4.65	0.61
지속학습역량 → 생애학습역량	4.05	1.12	4.56	0.65
자기관리역량 → 생활관리역량	4.43	0.75	4.72	0.46
자기개발역량 → 진로개발역량	4.29	1.01	4.52	0.87
대인관계역량 → 대인관계역량	4.38	0.97	4.72	0.54
시민참여역량 → 사회참여역량	4.33	0.91	4.72	0.54

1차 조사 결과,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에 대한 타당성 전체 평균은 4.30(표준편차=0.95)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연구진에 의해 구성된 청소년 역량군이 청소년 시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 중 자기관리역량이 4.43(표준편차=0.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역량(평균=4.38, 표준편차=0.97), 시민참여역량(평균=4.33, 표준편차=0.91)순으로 나타났고, 지속학습역량(평균=4.05, 표준편차=1.12)이 다른 역량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한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 역량군의 설정이 적절하며 기본관점과 개념모형에 비추어 역량군의 요소를 주요 환경 영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을 구성한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다만, 청소년 역량군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위하여 용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우선, '지속학습역량'은 자기개발역량의 개념상 혼돈을 피하고 사회변화에 맞추어 평생에 걸쳐 학습해야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생애학습역량'으로 수정하였고, '자기관리역량'은 자기관리

보다 생활습관 및 태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관리역량'으로 수정하였으며, '자기개발역량'의 하위요인들이 삶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여가 및 도전정신 등의 하위요인도 모두 진로개발역량에서 다루어진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진로개발역량'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대인관계역량'은 용어의 문제는 없어 보이나 시민참여 역량과의 개념적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어 해당 개념을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과 개인(1:1뿐만 아니라 1:여러 개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시민참여역량'은 청소년이 사회구조 속에서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까지의 경험의 범주가 확대되는 과정을 예측할 때 시민참여역량의 큰 개념보다는 사회참여역량이란 용어로 변경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사회참여역량'으로 수정하였다.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 용어와 개념을 수정한 뒤,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표 6>참조), 청소년 역량군의 전체 평균은 4.65점(표준편차=0.61)으로 평균 점수가 1차 조사 결과 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정·보완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 개념과 구성체제 즉,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등 5개 영역이 상당히 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 역량군에 있어 생활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의 평균이 4.72이며, 생애학습역량 4.56, 진로개발역량 4.52로 모든 역량군의 타당성이 1차보다 높게 나타나 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기타 의견에는 초안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용어들에 대한 개념이 명료하게 정리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청소년 역량군의 구성체제와 개념적 설명을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최종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 구성체제에 따른 개념적 정의

역량군	개념적 정의
생애학습역량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생활관리역량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진로개발역량	일상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
대인관계역량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
사회참여역량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

2.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의 하위역량 구성체제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청소년 역량지수의 5개 역량군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역량의 구성체제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의 하위역량 구성체제 대한 1, 2차 타당성 조사 결과

최종 수정된 역량군	하위역량	하위 역량의 타당성			
		1차		2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애학 습역량	사고력	4.52	0.60	4.84	0.37
	지적도구활용	4.48	0.68	4.72	0.68
	학습민첩성→학습적응성	3.71	1.15	3.64	0.86
	전체	4.24	0.81	4.40	0.64
생활관 리역량	건강 및 신체관리→건강관리	4.62	0.59	4.83	0.38
	목표 및 과제관리→과제관리	4.45	0.83	4.54	0.72
	상황대처 및 관리능력→상황대처	4.43	0.81	4.58	0.72
	경제관리→삭제	4.05	1.07	-	-
	정서조절	4.57	0.93	4.72	0.54
	전체	4.36	0.82	4.67	0.59
진로개 발역량	진로설계	4.57	0.81	4.84	0.37
	여가활용	4.52	0.68	4.52	0.65
	개척정신	4.24	0.77	4.24	0.83
	전체	4.48	0.77	4.53	0.62
대인관 계역량	관계형성	4.52	1.08	4.84	0.47
	리더십→개인 리더십→리더십	4.38	0.97	4.16	0.94
	협동	4.57	0.75	4.80	0.65
	전체	4.41	0.87	4.60	0.69
사회참 여역량	개인 시민→개인 시민성	4.43	0.75	4.72	0.46
	공동체 시민→공동체 시민성	4.57	0.68	4.80	0.58
	세계 시민→세계 시민성	4.43	0.68	4.68	0.56
	전체	4.45	0.83	4.73	0.53
	전체	4.42	0.81	4.59	0.61

1차 조사 결과, 청소년 역량군의 하위역량에 대한 타당성 전체 평균은 4.42(표준편차=0.81)로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에서 사고력이 4.52(표준편차=0.60), 지적도구활용 4.48(표준편차=0.68)로 높게 나타났지만, 학습민첩성은 3.71(표준편차=1.1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에서는 건강 및 신체관리가 4.62(표준편차=0.59), 정서조절 4.57(표준편차=0.93),

목표 및 신체관리 4.45(표준편차=0.83), 상황대처 및 관리능력 4.43(표준편차=0.81), 그리고 경제관리 4.05(표준편차=1.07)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에서는 진로설계가 4.57(표준편차=0.81), 여가활용 4.52(표준편차=-0.68), 그리고 개척정신이 4.24(표준편차=0.77)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에서는 협동이 4.57(표준편차=0.75), 관계형성 4.52(표준편차=1.08), 그리고 리더십이 4.38(표준편차=0.97)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에서는 공동체 시민이 4.57(표준편차=0.68), 개인시민 4.43(표준편차=0.75), 그리고 세계시민이 4.43(표준편차=0.68)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역량군의 하위역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청소년 역량군 하위역량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한 결과, 생애학습역량에서 학습민첩성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가장 타당성이 낮은 항목이었다. 이는 '학습민첩성'이란 용어의 낯설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보다 청소년에게 친숙한 용어인 '학습적응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생활관리역량에서는 '건강 및 신체관리'를 '건강관리'로 '목표 및 과제관리'를 '과제관리'로 '상황대처 및 관리능력'을 '상황대처'로 해당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 개념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경제관리'의 타당성 평균은 높기는 하지만 상대적 중요도 측면에서 청소년 역량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낮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기로 하였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용어는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대로 유지하였고, 해당 개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진로설계'의 개념이 '목표 및 과제관리'의 개념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의미를 부분 수정하였다.

대인관계역량에서는 관계형성과 협동의 용어는 그대로 유지하였고, '리더십'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너무 큰 개념이므로 청소년 자신을 가치롭게 이끌어 가는 개인 리더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따라 '개인 리더십'으로 수정하였으나, 2차 조사결과에서 '개인 리더십'의 개념이 '개인 자신을 가치롭게 이끌어 가는 개념'이라고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역량'으로 수정하고 보편적 개념인 '리더십'의 용어 사용을 다수 전문가가 제안하여 다시 '리더십'으로 유지하였다.

사회참여역량에서는 시민성을 보다 명료하게 진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 시민'을 '개인 시민성'으로 '공동체 시민'을 '공동체 시민성'으로 '세계 시민'을 '세계 시민성'으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역량군 하위역량의 용어와 개념을 수정한 뒤, 2차 조사를 실

시한 결과(<표8>참조), 하위역량의 타당성 전체 평균이 4.59(표준편차=0.61)로 1차 조사결과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습적응성’과 ‘리더십’ 항목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 점수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역량군의 하위역량 개념과 구성체제가 양호하게 개선되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청소년 역량군의 하위역량 개념 및 구성체제를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최종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의 하위역량 구성체제에 따른 개념적 정의

역량군	하위역량	개념적 정의
생애학습 역량	사고력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비판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지적도구활용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학습적응성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생활관리 역량	건강관리	자신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과제관리	삶을 위해 행하여하는 모든 삶의 과제(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에 대한 목표 설정, 실행계획, 실행 및 자기점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상황대처	개인 또는 사회적 문제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정서조절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능력
진로개발 역량	진로설계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여기활용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개척정신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 역량	관계형성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리더십	개인인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치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추진하는 역량
	협동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사회참여 역량	개인 시민성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초가 되는 민주적 가치, 신념을 갖추기 위한 역량
	공동체 시민성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민주적 원리를 존중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갖추어야 할 역량
	세계 시민성	인류 번영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협력하고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

3.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우선순위 및 시기별 중요도 분석 결과

1, 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정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과 구성체제를 바탕으로 각 역량군 및 하위역량간 상대적 중요도와 청소년 발달단계 시기별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하여 3차 전문가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청소년 역량지수의 가중치 및 청소년 시기별 중요도

역량군	역량군 우선순위	하위역량	하위역량 우선순위	하위역량 가중치1)	청소년 시기별 역량 우선순위2)		
					초기	중기	후기
생애학습 역량	3	사고력	5	0.0758	○	●	◎
		지적도구활용	12	0.0500	○	◎	●
		학습적응성	13	0.0425	◎	●	◎
생활관리 역량	1	건강관리	2	0.0937	●	◎	○
		과제관리	7	0.0718	○	◎	●
		상황대처	6	0.0734	○	◎	●
진로개발 역량	4	정서조절	3	0.0865	◎	●	○
		진로설계	8	0.0718	○	◎	●
		여가활용	11	0.0536	○	●	◎
대인관계 역량	2	개척정신	15	0.0294	○	●	◎
		관계형성	1	0.0988	○	●	◎
		리더십	14	0.0397	○	◎	●
사회참여 역량	5	협동	4	0.0778	●	◎	○
		개인 시민성	9	0.0579	○	◎	●
		공동체 시민성	10	0.0575	○	◎	●
		세계 시민성	16	0.0198	○	◎	●

1)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하위역량간 가중치(세로)
 2) 청소년 시기별 역량 우선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표 10>에 의하면, 청소년 역량군 5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생활관리역량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역량, 생애학습역량, 진로개발역량, 사회참여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의 하위역량 간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관계형성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관리, 정서조절 역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량군과 하위역량의 우선순위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이 다른 역량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역량은 리더십, 개척정신, 세계 시민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조사된 우선순위를 기

준으로 가중치를 제시하였는데,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하위역량 간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가중치의 범위는 최소 0.0198에서 최대 0.0988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 중 어느 시기에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결과, 청소년 초기에 중요한 역량은 건강관리, 협동으로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이 고학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에 발달시켜야 할 중요 역량으로서 이 시기에 발달과업으로써 해당 역량을 신장시킨다면, 중기 청소년 더 나아가 성인기에 되어서도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역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중기에 중요한 역량은 사고력, 학습적응성, 정서조절, 여가활용, 개척정신, 관계형성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중기는 중고등학교 시기로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계를 넓혀 나가며, 자신의 생활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 되는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후기 즉 19세 이상 성인기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지적도구활용, 과제관리, 상황대처 진로설계, 리더십, 개인 시민성, 공동 체시민성, 세계 시민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인으로 사회적 책무성이 증가되고, 개인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설계가 중요하게 됨으로써 요구되는 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역량지수를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역량지수는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민첩성),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사회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등 5개 역량군에 16개의 하위역량이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역량지수는 기존에 개발된 청소년 관련 역량지수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역량지수를 바탕으로 기존 청소년 역량지수들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생애학습역량은 기존 역량에서 도출된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학습력을 사고력과 학습적응성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사고력은 기존의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뿐만 아니라 통합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의 사고력 요인을 포함하고 학습력은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을 포함한 학습적응성으로 재개념화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학습역량을 전 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생애학습역량으로 개념화하였다는 점, 사고력이나 지적도구 활용능력에서 벗어나 통합적, 비판적, 감성적 사고력으로 최근 사회문화적 추세에 요구되는 사고력으로

로 개념화하였다는 점, 학습력을 인지적 측면에서 국한하지 않고 변화수용력이나 지적 호기심과 학습주도성과 같이 통합적 학습능력으로 개념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량들과 차별화된다 할 수 있겠다. 생애학습역량은 기존 OECD의 DeSeCo 연구, 미국의 EFF 프로젝트, OECD의 ALL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했던 사고력과 지적도구 활용능력을 포함하면서도 급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와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연구에서 제안하지 않았던 사고력의 개념에 인지적 사고력 뿐만 아니라 감성적 사고력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제안하였다는 점도 차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생애역량이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핵심역량에는 주로 인지적 또는 정의적 역량에 초점을 두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생활관리역량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을 관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안하였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므로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역량과 상황대처역량을 중요하게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져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방과 후 사교육활동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시기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져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황대처능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디지털세대인 요즘 청소년들은 매체와의 친밀도가 상당히 높아 중독으로 이어져 청소년 본연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 또는 유해행위에 노출되어 스스로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삶을 건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차원에서 보호역할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유해상황으로부터 스스로 자기관리할 수 있는 상황대처역량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안된 역량으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진로개발역량은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여가활용 및 개척정신의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넣어 진로개발을 단순한 자기 탐색과 직업에 대한 정보획득의 차원과 구별 지었다. 과거 연구에서의 자기 탐색과 진로 정보획득이 진로개발을 위한 일차적 역량이라면 여가활용 및 개척정신은 자신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고 진로 정보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이차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진로 탐색과 진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로 성숙의 개념이 여가 활동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한 것으로(Munson & Savickas, 1998; Kelly & Kelly, 1994; Witt & Ellis, 1987), 여가의 개념을 단순한 휴식 및 기분 전환 뿐 아니라 진로 목표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강요되지 않는 자기개발'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진로 개발 활동을 돕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개척정신을 통해 기존의 직업진로의 개념에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개념을 추가하였고 이를 통

해 진로개발이 정해진 길에 대한 탐색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창조하는 의미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인관계역량은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협동을 통해 집단의 성과에 기여하는 역량으로 재개념화하였다. 대인관계역량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관리, 의사소통, 배려, 공감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기개방성, 의사결정, 집단활동 관리, 추진력, 집단축진, 팔로워십 등의 역량요인을 포함하여 개인 수준에서의 사회적 능력 뿐만 아니라 집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집단성과에 기여하는 역량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게 된다. 즉, 대인관계역량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기개방성과 친화성을 토대로 타인에게 공감 및 배려하며 의사소통하여야 한다는 점, 집단과제 상황에서 타인과 함께 의사결정을 통해 집단활동을 관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 나아가 집단 수준에서 스스로 기여하기 위해 촉진하고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역량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참여의 대상을 개인적, 공동체적, 세계시민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개념과 지표는 ICCS의 민주시민역량의 개념 및 기타 청소년 역량 연구의 시민참여 역량의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지만 ICCS가 민주시민역량을 인지영역과 행동영역으로 나눈 것과 다르게 실천대상을 개인과 공동체, 세계 등 확장적 개념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성장과 함께 그 대상의 폭이 확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또한 기존 역량은 국가정체성, 규칙준수, 참여의식, 공동체의식, 국제사회문화이해, 시민의식과 정직/정의, 책임, 윤리(어른공경) 등 역량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개념보다는 요소적인 개념으로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으로 조직 규모에 따라 개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시민성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시민성에서 권리의식, 공동체 시민성에서 사회봉사 역량, 세계시민성에서 국제사회 공헌 등과 같은 역량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역량으로 차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참여를 위한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소속된 사회의 다양성과 정치참여, 사회봉사활동을 익힐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우리 청소년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가 기존 연구가 차별화되는 독특성은 청소년 역량 구성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시기별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이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요소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역량은 건강관리역량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역량은 세계 시민성 역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의 상대적 중요도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진다.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역량이지만 이 역량은 초기 청소년 시기에 갖추어야 할 역량이며, 이 역량은 중기, 후기로 갈수록 그 중요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관리 역량은 식생활이나 운동과 같이 생활습관과 관련된 역량이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시기에 이 역량을 갖추어 놓으면 중기, 후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세계 시민성 역량의 경우 초기 청소년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후기 청소년시기에 세계 시민성 역량은 성인으로써 또는 사회구성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량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역량이 후기 청소년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량이기는 하지만, 초·중기 청소년 시기에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어 놓는다면, 후기 청소년 시기에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해당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 시기별 강화시켜야 할 역량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이에 다른 맞춤형 청소년 역량 강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제안하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과 구성체제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역량의 개념을 적용하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평가하고 청소년 역량 관련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 그리고 청소년 역량지수의 시기별 역량의 중요도가 과연 이 시기에 달성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경험 과학적 접근의 연구가 추후에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운경, 김영래, 고미숙(2008). **인성교육**. 경기, 파주 : 양서원.
- 교육부(2013).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서울: 교육부
- 김기현, 김지연, 장근영, 소경희, 김진화, 강영배(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08-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0-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인(2010). 청소년 시민 역량 개념과 강화 방안 탐색. **시민청소년학연구**, 1(2), 29-60.
- 김창환(2013). **학생역량지수 결과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정책세미나**.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재운, 이유경(201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4), 99-116.
-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오현석, 김윤영(2013). 대학교육에서 산업형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프로젝트 교수학습모형 탐구. **교육방법연구**, 25(3), 543-580.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오현석, 성은모(2013). 융합재역량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4(4), 201-228.
- 윤명희, 김진화(2008).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2), 173-197.
- 윤명희, 장아름(2008).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49-66.
- 천정웅(2009). 적극적 관점의 청소년활동: 역량개발의 이론, 정책, 실천. **청소년행동연구**, 14, 31-49.
- Ananiadou, K., & Claro, M. (2009). 21st Century Skills and Competences for New Millennium Learners in OECD Countrie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4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218525261154>
- Boyatzis, R. (1998). *Transforming qualitative information: Thematic analysis and code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 Kelly, J. R., & Kelly, J. R. (1994). Multiple dimensions of meaning in the domains of work, family,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250-274.
- McClelland, D. (1993). Introduction. In L. Spencer & S. Spencer(Eds.),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pp. 3-8). New York: John Wiley & Sons.
- Merrifield, J. (2000). *Equipped for the Future-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NIFL.
- Ministry of Education (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for English-medium teaching and learning in year 1-13*.
- Munson, W. W., & Savickas, M. L. (1998). Relation between leisure and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3(2), 243-253.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2015, April 26,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pisa/35070367.pdf>
- Rychen, D. S., & Siganik, L. H.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Spencer, L., & Spencer, S.(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UNESCO (2013). *Toward universal learning*. Washington, D. C. : Center of Universal Education and Brookings
- Witt, P. A., & Ellis, G. D. (1987). *Leisure diagnostic battery: conceptualization, development, reliability, validity, and procedure for testing and scoring*.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distributor.

* 논문접수 2015년 5월 6일 / 1차 심사 2015년 6월 9일 / 게재승인 2015년 6월 19일

* 성은모: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있으며, 주요관심분야는 전문가의 핵심역량 및 지표개발 연구, 스마트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자기주도학습력 강화를 위한 학습설계 구인 및 전략 개발 연구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 중에 있다.

* E-mail: emsung@nypi.re.kr

* 최창욱: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인여대 전임강사, 서울대 등 시간강사, 한국4-H본부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역량연구실장(선임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청소년참여, 청소년리더십, 청소년정책 등이며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 E-mail: ccwook@nypi.re.kr

* 김혜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대학교육혁신원 조교수로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역량기반 교수체제 설계, 팀프로젝트학습 설계, 학습성과 평가설계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 중에 있다.

* E-mail: hkkiml@sunmoon.ac.kr

* 오석영: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M.P.A)를,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청소년 활동,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기업교육, 직업진로지도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E-mail: syoh01@mju.ac.kr

* 진성희: 경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하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조교수로 있으며 주요관심분야는 학습분석, 디자인 씽킹(창의성 증진) 교수법, 디지털텍스트의 시각적 설계, 적정 교수법(appropriate teaching strategies) 등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 E-mail: shjin@inha.ac.kr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Youth Competency Index(KYCI) and Definition*

Sung, Eunmo**

Choi, Changwook***

Kim, Hyekyung****

Oh, Seok-Young*****

Jin, Sung-Hee*****

The currents and future society are demanded high competence in order to create new value products. In this contexts, it is emerging issues how to cultivate and improve youth competence for successful life. Thus, this research have been tried to explore index and definition of youth competences for the current and future society. To address this goal,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Youth Competency Index(KYCI) and definition by elaborating opinions of 28 youth experts who have been training and researching youth education for 10 years. As a result, there were developed five youth competency clusters and sixteen sub-competency: *lifelong learning competency(LLC)*, *life management competency(LMC)*,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CDC)*,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IRC)*, and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SPC)*. Based on those competences, there were discussed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n developed KYCI, also, suggested some issues in order to cultivate youth competences in youth policy and activity programs.

Key words: Youth, Competency, Lifelong, Life management, Career develop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cial participation

* This paper was partly revised the report of 'A development study of Korean Youth Competency Index' that was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First autho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ssociate Researcher, emsung@nypi.re.kr

*** Corresponding autho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enior Researcher, ccwook@nypi.re.kr

**** Sunmoo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hkim1@sunmoon.ac.kr

***** Myongji university, syoh01@mju.ac.kr

***** Inha university, Academy of Convergence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 shjin@inha.ac.kr